

## 고학력 여성의 '워킹맘되기'에 대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적 접근\*

구유정\*\*, 장원섭\*\*\*

### 초 록

이 연구는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제약들로부터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인간활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모형으로 워킹맘의 일과 육아 병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자녀 육아기에 있는 7명의 고학력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3-5회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연구자료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일과 육아활동의 순조로운 병행을 위한 분명한 '경계 만들기',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채 직장인과 엄마의 주체성을 오가는 '변신하는 힘겨움',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는 일과 육아활동체계의 '통제되지 않는 일과 육아의 경계'라는 구조적 모순들이 드러났다. 둘째, 이러한 제약과 충돌들을 경험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맺고 끊기의 일하는 방식과 경계 짓기와 허물기의 삶의 방식을 학습하며 워킹맘으로서의 정체성을 학습해가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워킹맘의 심리적 고통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던 선행연구와 달리 활동체계의 프레임으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의 제약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그러한 구조적 모순에 대응하는 과정에 학습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워킹맘, 일·가정양립,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확장학습

\*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bmbcathy@naver.com)

\*\*\*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정교수(wchang@yonsei.ac.kr)

## I. 서론

“내 딸은 결혼 안했으면...” 올해 4월 25일자 <머니S> 제 537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는 해당일 오후까지 SNS공유 1위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기사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과 가정의 불균형, 직장 내 불이익 등의 이유로 청년층은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일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암묵적 맥락은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경력지속의 장애요인에 대해 “육아부담”이라는 응답이 최근으로 갈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이정희, 2014).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이야기할 때 특히 ‘육아’의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실제로,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논할 때 주로 이야기되는 대상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다(김영미, 2013).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워킹맘은 직장 일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까지 도맡아야 하는 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었는데 특히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30대 워킹맘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조혜영, 2012). 결국 워킹맘들이 경험하는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30~39세의 취업률 급감, 즉 경력단절 현상으로 이어진다(신윤정, 2015). 국내 양성 격차 현황에 관한 2014년 OECD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30~39세 구간의 여성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M자형의 곡선이 그려진다(신윤정, 2015). 즉,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이 결혼과 출산 등 생애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강규희, 2016; 김혜영, 2007).

우리나라 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은 고학력 여성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급속한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은 60%대로 고학력 남성의 취업률인 약 90%와 여전히 격차를 보인다(통계청, 2016). 또한 2015년도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적, 개인적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이나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 과정에 대한 학술 연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우선, 일과 육아의 책임을 떠맡고 있는 데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반응을 기술하는 연구들이 많은 반면 평생학습 관점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학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부족하다. 이내영과 김영혜, 구미지, 김소희, 김영미, 장경오(2007), 김선미와 안희란(2016), 강규희(2016), Smith, Santucci, Xu, Cox, & Henderson(2012), Wattis, Standing, & Yerkes(2013), Grant-Vallone & Ensher(2010) 등 다수의 연구들이 직장 여성의 일·가정 병행 경험에 대한 고충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워킹맘이 직면한 심리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환경적 제약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는지를 평생학습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존 연구들이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개인의 수준에서 접근되어 왔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채, 여성이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서 인식하는 역할갈등, 역할전이의 정도를 탐색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cf. 김현동, 2015; 박기남, 2009; 이자명, 2013). 워킹맘의 일과 육아에 영향을 끼치는 맥락 요인들로 조직의 가정친화 제도 및 문화에 관한 연구들(cf. 김은정, 2013; 권태희, 2010; 정진철·김성만, 2008; 이희정, 2012 등)이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특정한 조직 차원의 변수들과 개인의 일과 가정 양립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특정한 조직의 문화나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워킹맘이 구조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주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단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상정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워킹맘 개인과 문화역사적 맥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상황에서의 제약들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접근들에 대한 대안으로 Yrjö Engeström(1987)의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CHAT)으로 접근한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은 활동체계 모형에 개인과 집단, 인간과 물질의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각 요소들 간의 충돌과 불일치를 학습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워킹맘의 일과 육아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워킹맘 개인과 문화역사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하고, 워킹맘들의 고통, 갈등으로 표현되어 온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대응되는지를 통해 워킹맘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어떤 확장적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교육학적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통해 고학력 워킹맘이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 워킹맘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구조적 모순들에 직면하는가? 둘째, 고학력 워킹맘은 그러한 갈등과 모순을 통해 무엇을 학습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모형을 분석의 틀로 삼고, 워킹맘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문화역사적 맥락과 구조적 모순을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워킹맘(working mom)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일하는 엄마’이다. 여기서의 일은 임금노동을 의미한다(문은미, 2014). 즉, 워킹맘이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인 여성들을 통칭하여 쓰이고 있다(노성숙·한영주·유성경, 2012).<sup>1)</sup> 워킹맘은 2001년 이후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가정 양립과 관련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여성노동의 의제로 등장했다(곽현주·최은영, 2001 ; 문은미, 2014). 여성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가 그에 못 미치는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될 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이 맞물려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cf. 곽윤숙, 2003 ; 신윤정, 2015).

이와 관련하여 고학력 워킹맘의 일과 육아 경험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은 고통과 부담으로 표현되고 있다.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워킹맘은 직장 일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까지 도맡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워킹맘의 고통지수는 5점 기준에 3.04점으로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30대 워킹맘에게는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조혜영, 2012). 이정희(2014)에 따르면 여성 경력지속의 장애요인에 대해 “육아부담”이라는 응답이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도 나타

1) 국립국어원은 2010년에 외래어인 워킹맘을 대체할 용어로 ‘직장인엄마’를 선정하고 2015년에는 자영업을 하는 엄마,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 등도 포괄하기 위해 ‘일하는엄마’를 추가했다(국립국어원, 2015). 하지만 언론이나 매체를 비롯한 한국사회에서는 워킹맘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일보, 2010 노성숙 외(2012)에서 재인용).

났다. 이내영 외(2007)는 워킹맘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자녀가 1세 이하인 고학력 직장 여성 6명과의 인터뷰 결과 육아 그 자체의 힘듦,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미안함, 고달픈 이중생활, 잃어버린 나, 부모자리를 깨달아감, 사회적 지지를 갈망함의 6가지 주제들이 발견되었다. 취업여성에게 일과 삶의 조화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천혜정과 이지선(2010)의 연구에서 일과 삶을 분리하고 일 외의 삶을 즐기는 것, 일과 삶의 조화는 생계유지 이후의 문제,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의 주제들로 발견했다.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특히 역할갈등이론에 기반하여 접근하고 있다. 김보령(2016)에 따르면 워킹맘의 양육관련요인(보육비 부담,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이 워킹맘의 스트레스, 역할갈등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에서 박기남(2009)은 직종, 주당 평균 노동 시간과 고용형태, 직업전망 등의 고용조건이 시간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한편 노성숙 외(2012)는 워킹맘들이 겪는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워킹맘들의 다중역할 경험은 '두 세계의 긴장 속에서 전력질주하기, 불편한 시선과 함께 살아가기, 크고 작은 위기 속 나만의 오묘한 선택하기, 일과 가정을 넘나드는 부요함, 경계선에 서서 터득하는 실천적 지혜'의 주제들로 이해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워킹맘 개인의 심리적인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육아와 같은 돌봄노동이 불균형적으로 여성의 부담으로 지워지는 상황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1990년대 이후 여성 취업의 증가로 여성과 남성이 대등하게 일과 가족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취업 여성의 이중 부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나 성별 역할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강이수 외, 2015). 이는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이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잔재라는 더욱 거시적인 사회구조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라는 구조와 가부장제라는 구조의 상호 의존을 매개하는 지배적 구조는 노동과 사회의 성별 분업이다(이재유, 2011). 전통적 성별 분업체계에서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돌봄노동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유급 노동에 비해 주변적이고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강이수 외, 2015; 이은희, 2000). 이러한 문화적 토대 속에서 일 중심으로 살도록 한 산업화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됨에 따라(강규희, 2016),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직업 역할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역할 수행을 요

구하는 경향이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남아 있다(이수혜, 2006). 이와 같이 생계는 남성이 담당하고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맡는 사회적 문화(최효미, 2013)와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함께 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종합해보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주요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이 일과 육아 병행이 구조적 불합리함 속에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시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차원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고충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합리함과 충돌이 경험되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밝히는 연구들이 많은 반면, 그것을 극복해가며 학습하고 성장하는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워킹맘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워킹맘으로서 구조적 제약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학습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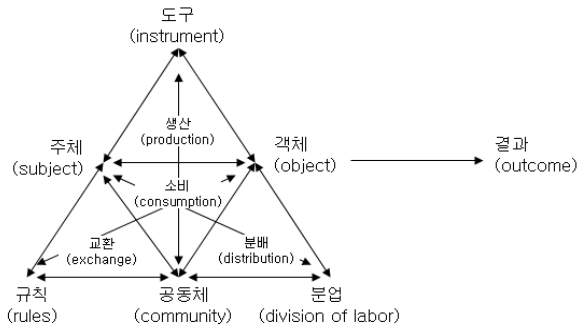
#### 1. 질적 사례연구 방법과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이 연구는 자녀육아의 고학력 워킹맘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그녀들만의 독특한 과정을 알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워킹맘 개인을 사례로 설정하고 다수의 사례들을 연구하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사례연구에서 사례란 “경계를 가진 체계(bounded system)”로서 이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은 유계성(boundedness)과 활동 패턴(activity pattern)이다(Stake, 2005). 사례연구의 목적은 분명한 경계를 가진(Creswell, 2010) 사례들의 집단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그들을 대변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연구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맥락 속에서의 구체적인 과정을 탐색하는데 유용하다. 사례 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원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과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한다(박순용, 2010). 질적 사례연구 방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

하며 여러 가지 갈등과 대응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워킹맘들의 특수한 삶의 장면들을 포착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은 분석의 도구이자 이론적 렌즈로 활용되었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분석(activity systems analysis) 방법에 입각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사회물질적, 구조적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워킹맘의 일과 육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첫째,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통해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워킹맘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은 Marx의 영향을 받은 Vygotsky의 문화역사적 심리학과 Leont'ev의 활동이론으로부터 발전한 사회물질적 접근의 이론으로 객체와 주체, 그리고 도구, 분업, 규칙, 공동체의 6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진 활동체계(activity system)의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분석 틀로 삼는 접근에서는 개인을 집단적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체계의 구성요소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상황에만 집중하거나 개인을 맥락으로부터 분리한 채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접근과 달리 활동체계에 배태된 주체로서 개인을 이해함으로써 개인과 활동체계의 맥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서 주체인 개인을 포함한 활동체계의 요소들 간, 그리고 활동체계들 간의 모순 개념은 활동체계의 확장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즉, 활동체계의 각 요소들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일과 육아 활동의 주체로서 워킹맘이 두 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체계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활동체계의 의미와 활동체계를 이루는 각 요소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활동체계는 인간 활동의 구조를 나타내며 객체(object)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활동체계는 객체(object), 주체(subject), 공동체(communitiy), 도구(instrument), 규칙(rule), 분업(division of labor)의 6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며 활동체계의 기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자료 : Engeström, Y. (2015)

[그림 1] 인간 활동의 구조

Engeström & Sannino (2010)은 다음과 같이 활동체계의 각 요소들을 설명한다. 우선 주체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 객체는 활동이 향하고 있는 원재료(raw material) 혹은 문제공간(problem space)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진화하는 활동체계의 일반적인 객체와 주어진 순간에 주어진 행위에서 특정한 주체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객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의료업에서 건강과 질병은 보편적 객체인 반면, 특정한 환자의 상태나 불만이 구체적인 객체가 될 수 있다. 객체는 매개체(도구, 기호)를 통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활동체계의 삼각형 모형에서 매개체는 매개하는 인공물, 또는 도구, 기호로 표현된다. 결과는 의도적일 수도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공동체는 같은 객체를 공유하는 개인들, 하위집단들로 구성된다. 분업은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과업의 분할과 수직적인 권력과 지위의 구분을 의미한다. 규칙은 활동체계 내에서의 행위를 규제하는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규칙, 관례, 기준 등이다.

활동체계를 분석할 때 연구자는 활동체계가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이론적 개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활동체계의 모형이 정적인 2차원적인 그림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 활동체계는 입체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활동체계는 그것을 분석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화한다(Engeström, 2006 ; 2008 ; 2015). 특히, 활동체계는 단일한 활동체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체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얹히고 설켜있다. Engeström(1987)은 이와 같이 활동체계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활동체계의 주체나 객체 등의 요소들은 다른 활동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한다. 그리고 진화한 활동체계



의 요소는 같은 활동체계 내의 나머지 요소들을 다시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활동체계(들)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따라 확장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체계를 분석할 때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보다 유연하게 활동체계를 보는 것에 열려있어야 한다 (Engeström, 2006).

## 2.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적 사례연구에서 어떤 사례를 선택하는가는 연구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남미자, 2015). 이 연구에서는 '고학력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이라는 특정 현상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을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틀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례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우선, 자녀의 육아기에 있는 워킹맘들에 집중하였다. 둘째,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워킹맘들로 범위를 한정했다. 세 번째로,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들로 한정하였다.

자녀 육아기의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 대해 제보할 연구참여자들을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의도적 표본추출이란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현상과 개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이 연구의 문제와 연구의 중심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Creswell, 2010). 이 연구에서는 좋은 정보제공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모집했다. 첫째, 연구 주제에 관한 이야기거리가 풍성하여 연구 질문에 대해 잘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취학 전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 온 생생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워킹맘들을 선정했다. 둘째, 연구자와 라포 형성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 간의 학력과 직종의 구성을 고려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추출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기준이 다양성이다(Stainback & Stainback, 2002).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의 방식과 육아 방식을 가진 연구참여자들 간의 피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기 위하여 고학력 워킹맘들 중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를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했으며, 직업과 근무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2015년 12월부터 잠재적 연구참여자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잠재적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연구가 워킹맘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재미있겠다는 기대감과 호의를 갖고 기꺼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다. 1차 면담은 총 1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2명과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된 1명을 제외한 총 7명으로 연구참여자가 확정되었다. 확정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연구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수락했다.

최종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 4명이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석사가 1명, 박사 2명이었다. 연령은 35세에서 40세까지였으며 모두 결혼 후 3년 이내에 첫 자녀를 출산하였다. 첫 자녀 출산 시의 연령은 모두 30세 전후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가정 내에서 경제적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외의 경력단절은 없었고 출산 후에도 출산 전의 경력을 이어갔다. 연구참여자들의 직종은 전문직 또는 사무직이었으며 출산 후 개인사업을 시작한 워킹맘 1과 시간제로 주 3.5일 근무하던 워킹맘 5를 제외하고 모든 참여자들은 전일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는 1명에서 3명 사이였고 인터뷰가 진행될 당시 막내의 나이는 3세에서 7세 사이였다. 연구의 초기에는 연구참여자의 근무형태나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경험이 상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험의 차이를 구분짓기 보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드러내는데 집중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기관의 종일반에 등록하거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육아 돌봄 조력자의 존재는 연구참여자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자원이었다. 각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표1〉 연구참여자의 특성<sup>1)</sup>

연구참여자	나이	최종학력	현재 직업	결혼 연한	자녀수 (나이)	육아형태
워킹맘 1	36	석사	교육분야 전문컨설턴트	5년	1남(2세)	출퇴근 육아도우미 고용
워킹맘 2	35	박사	의료기관 연구교수	10년	1남(6세), 1녀(8세)	입주 육아도우미 고용
워킹맘 3	36	학사	초등학교 교사	5년	1남(3세)	친정부모님 동거

1) 연구자의 나이 및 결혼연한, 자녀의 나이는 모두 첫 면담을 시작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나이	최종학력	현재 직업	결혼 연한	자녀수 (나이)	육아형태
워킹맘 4	36	학사	유물 연구기관 연구원	5년	1남(4세)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워킹맘 5	35	박사	프리랜서 치과의사	6년	2녀 (5세, 1세)	시부모님 도움, 출퇴근 육아도우미 고용
워킹맘 6	39	학사	기술서비스분야 대기업 과장	9년	3녀(8세, 7세, 3세)	출퇴근 육아도우미 고용
워킹맘 7	35	학사	금융분야 대기업 대리	4년	1녀(2세)	친정, 시부모님 도움

이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심층 면담이다.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의 생활세계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공병혜·박순애, 2009). 심층면담의 근원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Seidman, 2009).

연구자는 면담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첫째는 면담을 할 때마다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로 생생한 일상의 경험들을 들을 수 있었다. 둘째는 출산 전후, 복직 전후의 상황에 대해 회고하는 방식이었다. 총 7명의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9개월 간 3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연구참여자마다 최대한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3~5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분리하기 어렵다(Seidman, 2009). 면담을 진행하고 전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동성과 김영천 (2014)이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했다. 1단계는 반복적으로 자료를 읽고 질적 자료를 정리 및 관리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분석적 메모를 쓰는 단계로서 연구자의 통찰과 반응을 메모하는 작업을 한다. 3, 4, 5단계는 3차에 걸쳐 코딩을 하는 단계이다. 1차 코딩에서는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이 이루어지고 2차 코딩에서는 추가적 코딩을 통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3차 코딩에서는 범주들을 통합하고 문화적 주제를 발견한다. 마지막 6단계는 시각적 모형, 이론제시, 명제제시, 표, 그림, 내러티브의 방법으로 연구결과를 재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2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 IV. 연구 결과

### 1. 워킹맘의 분열과 구조적 모순

#### 1) 일과 육아 사이의 경계만들기

아이를 출산하기 전과 후,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분명하게 달라졌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공백 이후 달라진 일터 환경에의 적응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역할분담, 그리고 주 양육자가 바뀌거나 기관에 다니게 되는 등 자녀가 경험하는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 것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복직, 혹은 이직 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삶이 안정화되기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의 시간이 걸렸다.

사실 워킹맘들은 출산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아이의 공동양육자를 찾아 육아와 관련하여 분업체계를 ‘세팅’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좋은 일의 조건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했다. 즉, 워킹맘으로의 삶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일과 육아 활동을 순조롭게 병행하기 위해 일과 육아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워킹맘들은 일과 육아의 활동체계 간의 경계를 재정비하고 조정함으로써 일과 육아 활동 각각을 잘 수행하고자 했다. 우선, 일터에서 워킹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에 맞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할 일이 많았다. 새롭게 바뀐 조직의 제도나 직무를 숙지해야 했으며 조직구성원으로서 잘 융화되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양상은 출산 후에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뿐 아니라 복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가정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육아공동체가 잘 가동되도록 가족 간의 조율이 필요했다. 가족과의 협력적 육아 활동은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남편, 친정어머니 등의 모든 주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서로 간의 마찰을 해결하고 순조롭게 협력해나가기 위한 분업체계를 변경하거나 규칙들을 만들어야 했다.

한 3개월은 걸렸죠. 휴직도 처음, 복직도 처음해보고 애기 어린이집 보낸 것도 처음이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처음이고 애기 아빠도 여기로 이사하면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게 처음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학부모가 돼서 애기 보내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다들 자기 스케줄이 빡빡한 거예요.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도 합가하면 우리가 그래도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는 저 혼자 씻고 나가고 하루 종일 또 애랑, 그래도 어린이집 보내니깐, 갔다 오면 엄마가 또 밥을 혼자 다 하셔야하고, 엄마도 이런 생활이 처음이니깐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워킹맘 3)

그 1년 간 저는 약간 미쳐있었던 거 같아요. 온몸이 긴장돼서 아침 5시면 눈이 떠지고 회사에서는 처음 저 같은 사람 들어온 거라 긴장되고 첫 사회생활이었고 조심스럽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조직에서... 그래도 일 하나하나 정말 다 처음해보는 일들이었는데 경험은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생각 못하고 넘어갔어요. (워킹맘 2)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시어머니랑 반반으로 바뀌었어요. 아침 조, 저녁 조로 나눴어요. 엄마가 계속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있었는데 자꾸 엄마와 불화가 [생겼어요.] 서로 피곤하다 보니깐 그런 거죠. 엄마와 제가 스케줄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흔쾌히 해주셨어요. (워킹맘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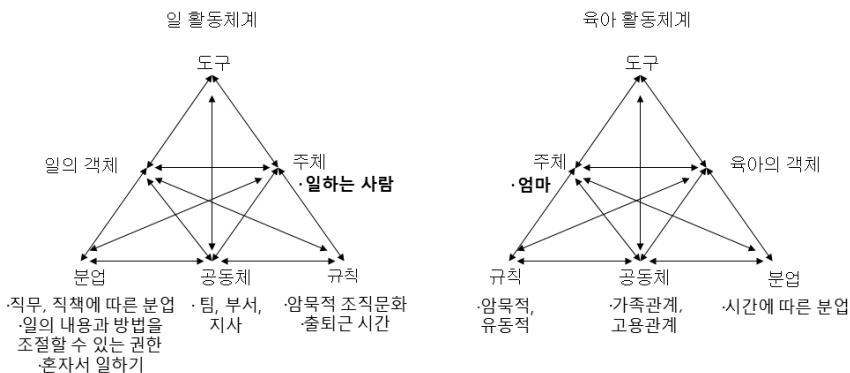
적응 과정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은 아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아이(들)이 엄마의 출근 자체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다. 아침마다 출근 길에 아이가 엄마를 붙잡는 상황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내적갈등과 어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출근이 늦어지기도 했다. 아이가 엄마의 출근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것이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인식하는 적응기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지금은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깸 거예요. 원래 늦게까지 자는데 소리가 나서 깬는지 엄마가 간다고 해서 깬는지 깨서 막 울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 엄마 회사 가야돼” 했더니 이해하고 놔주더라고요. 슬퍼요. (워킹맘 7)

솔직히 야근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삼월 한 달 동안은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걸 좀 힘들어했었거든. 그래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알아봐야하나 했는데 진짜 한 달쯤 지나니깐 애도 그냥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전에는 밤에 잘 때 ‘엄마 내일은 일찍 와. 꼭 일찍 데리러 와야 돼’ 그런 얘기하면서 잤어. “아빠 꼭 일찍 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깐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좀 가벼워졌는데 그 때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지. 일을 왜 다녀야 되지, 일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거... (워킹맘 4)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점은 경제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돌봄노동을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대리인에게 위임해버리면 되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적 인식과 충돌한다. 사회적 요구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시작했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 김보령(2016), 이내영 외(2007) 등의 기존의 연구들에서 육아를 물리적이고 소모적인 노동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왔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육아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요구되는 물리적 노동일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었다. 따라서 육아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꼼꼼한 계획과 심사숙고 끝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일과 육아를 오가는 경험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육아 활동체계를 변경하고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대응하였다.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어떻게든 육아 활동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일과 육아를 순조롭게 병행하고 싶어했다. 직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으로, 가정에서는 엄마로의 변신을 추구하며 각 활동에서 서로 다른 주체성(subjectivity)을 확립하고자 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일과 육아 활동체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순조롭게 가동되는 가운데 두 활동을 넘나들고자 하는 ‘경계만들기’의 방식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를 활동체계 모형으로 설명해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2]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과 육아 활동체계

## 2) 변신하는 나만의 힘겨움

워킹맘의 삶에서 일과 육아의 두 활동은 시간과 공간을 기반으로 철저히 분리되는 방식으로 공존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터와 가정에서 워킹맘이 아니었다. 일터에서는 직장인, 집에 와서는 엄마로 변신했다. 그것은 마치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엄마로서의 정체성간의 모드 전환을 하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은 변신의 과정은 소모적이었다. 오늘날 일과 가정을 넘어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을 포함한 노동 활동과 여가 활동의 균형을 의미한다. 하지만 워킹맘의 삶에 여가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워킹맘의 삶은 일과 육아로 포화상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하루살이, 쳇바퀴 도는 일상으로 표현했다. 즉, 워킹맘의 삶은 일과 육아 활동을 오가는 직장인과 엄마로 변신하는 일상이었으며 그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침과 고됨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퇴근하면서 변신하는 거죠. 엄마로 변신해서 이제 애 잠들 때 같이 잠이 들고, 그러니깐 그래서 저는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해서 학교생활에 아무리 제가 잘 적응을 했다고 해도 5시까지의 full이거든요. Full 하고 변! 신! 해 갖고 이제 육아모드로 가서 막 애기 맥이고 씻기고 설거지하고 내일 어린이집 갈 것 준비하고 애랑 한 한두 시간 책 보다가 자요....(중략)...하루가 지나고 나면 부듯함 보다는 힘들다, 지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일상에서 내 체력만 방전되는구나. (워킹맘 3)

퇴근 후에는 한두 시간, 세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애들만 보는 거예요. (워킹맘 6)

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일도 백프로가 아니니깐 어떻게든 다른 수를 써서 빨리 마치고 가려고 노력하고 애는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별로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킹맘 7)

하지만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고됨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 함께 일하는 공동체 안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남들과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좀 더 빠르게 일하고 집중하는 대신 퇴근 시간을 지키는 식의 다른 조직 내에서 인정되거나 전달되지 못했다. 일과 육아로 포화상태인 삶이었기 때문에 워킹맘의 입장에서는 출산 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들만이 존재했다. 워킹맘이라는

특수한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문화나 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내가 가진 역량의 120을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80, 70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나는 120을 해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워킹맘 5)

그래서 야근을 뺀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대리 아닌 계장들이 보기에는 대리나 됐는데 일을 안 해서 다른 직원이 힘들겠구나, 이러겠죠. (워킹맘 7)

외부에 있던 사람이 전적으로 육아를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깐..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깐 저보고 빨리 집에 오라고...남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을] 처음 시작하고 하니깐 아무리 일찍 온다고 해도 7시 반, 차가 막히면 8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아이들을 질적으로 케어할 시간은 적어지고 뭐 얘기 하다보면 10시에 재우게 되고 그게 막 반복되니깐.. 이제 그런 면에서 서로서로에게.. 저는 남편이 [아이들을] 더 자상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퇴근하고 와서 짧은 시간 애들 좀 놀아주면 어떠냐 저는 이런 마음이고...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와서 애들 보면 좋겠는데 뭘 할까 많다고 다 하고 가냐.. (워킹맘 2)

활동체계의 다른 주체들인 직장상사, 동료, 후배, 또는 가족 등의 공동양육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한 대인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일, 또는 육아 활동이 협력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로 작용했다. 특히, 워킹맘의 일과 육아 활동에서 이러한 갈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주체들 간의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입장이 지속됨에 따라 누적되고 심화되는 갈등이었다. 이 절에서 밝혀진 연구참여자들의 ‘변신하는 힘겨움’은 역할갈등, 스트레스, 소진 등의 개념을 통해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들은 일과 육아 두 활동체계의 경계를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고군분투로 해석할 수 있다.

### 3) 통제되지 않는 일과 육아의 경계

Engeström(2014)은 Giddens(2000)의 ‘질주하는 세계(runaway world)’ 개념에 착안하여 인간 활동의 객체를 ‘runaway object’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인간 활동의 통제불능의 변화무쌍함을 표현한다. 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간 활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과 육아 활동 역시 그와 같은 예측불허, 통제불능의 활동들이었다. 이와 같은 활동의 특성은 앞 절에서의 적응기간을 지난 후에도 적응기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계속 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소속된 조직, 업무의 내용과 방식이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경험했다. 육아에서도 뜻밖의 조정과 비상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에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움직여야 했다. 근무시간 외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서 범위가 넓어지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일들은 워킹맘이 육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설정해 놓은 경계를 침범하는 일들이었다.

만약에 고객들 '방문설치가 오후 늦게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 우리 부부는 토요일에도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주 6일제니깐, 방문설치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여기 다 끝나고 퇴근하고 가야돼. 그럼 나는 신랑도 늦게 오니깐 원래는 내가 4시까지 집에 와야지 이모님이 퇴근을 하는데 내가 4시까지 못 오니깐 그럼 엄마가 오셔서 이모님 바통터치하시고 이모님 퇴근시키지. 어제 같은 경우도 본사 교육 새벽같이 가니깐 친정엄마가 오셨거든. 왜냐하면 이모님은 오후에 오시고 신랑이랑 나랑 둘 다 7시에 나가야 되는데... 이주에 한번 본사교육이 있는데 그 때는 오셔야 되고...(워킹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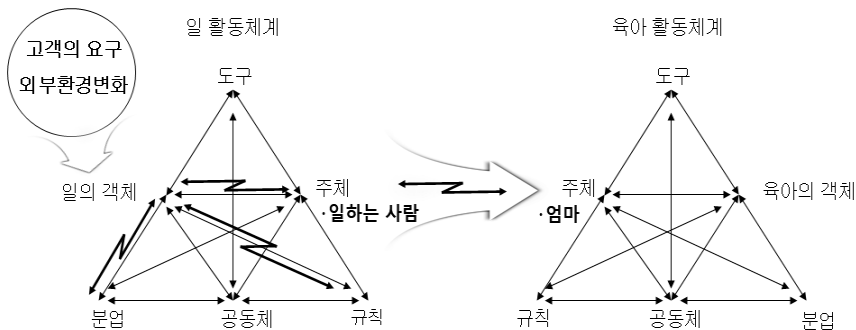
육아를 침범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긴다든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는 비정기 업무들이 생깁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뭔가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걸맞게 몇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처음 기획하는 것들에 따라서 일을 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양해졌어요. 회사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이 좀 더 다양해지고 하는 업무도 일의 내용이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깐 사람 대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연구자로서 대하는데 이제는 기관 대 기관으로 대하다 보니깐 그 기관에서도 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스케줄이 바뀔 것 같아요.(워킹맘 2)

육아의 과정에서도 언제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워킹맘들에게 '비상상황'이었다. 구축해 놓은 육아 체계는 비상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목표가 바뀌고 그에 따라 육아 체계가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다.

사실은 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간 어린이집을 처음에는 열시에 갔다가 한 시간 있다가 오고 그 다음엔 열시에 가서 열두시에 오고 이러니깐 애들은 적응이 될지 몰라도 어른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3월에... 적응기간은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의 적응기간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또 친정엄마가 배우고자 하시는 게 있어서 자격증, 스터디 이런 걸 신청을 해놔가지고 애를 찾을 수가 없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워킹맘 3)

아침에 소아과 갔더니 구내염 맞다고 그래서 바로 팀장님한테 연락 드렸지... 팀장님도 애들도 구내염 자주 걸렸거든... 화요일부터 쭉 못갈 것 같다고..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이 다행히.. 공휴일인가 그랬어. 쉬는 날.. 딱 1주일 앓고 화요일 날 나 출근하고 애기도 어린이집 갔어. 구내염 같은 거는 옮는 거라 격리 되어 되잖아, (워킹맘 4)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위기의 순간들에 직면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활동체계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애초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자신만의 경계와 구획을 설정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일이 육아 활동을, 육아가 일 활동을 침범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모순은 일과 육아 활동이 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적 역동은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외부의 요구에 따라 일 활동의 객체(object)는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활동의 객체가 바뀔 때 따라 일의 도구나 분업체계, 규칙, 그리고 주체 등의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바뀌게 되며 결국 육아 활동체계와 대치되는 모순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림 3] 일 활동체계와 육아 활동체계의 구조적 모순

## 2. 구조적 모순에의 대응과 결과

### 1) 일하는 방식의 학습 : 눈치껏, 요령껏 맺고 끊기

연구참여자들은 일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일치와 갈등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일 활동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함께 일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워킹맘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대신 몇 가지의 소극적 전략들을 통해 대응했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일에서의 주체성의 변화는 결국 육아 활동체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에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워킹맘들은 일에 관한 활동들에 대해 최소한으로 하기, 욕심 내지 않고 미루기, 모르는 척하기의 전략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설정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활동의 과제들을 모두 수행하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육아를 병행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최소한'으로 낮췄다. 아이가 어린 현재의 상황에서 워킹맘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일에 관하여 필수가 아닌 일은 포기해버렸다.

제가 거의 대외 활동을 많이 안하는 편인데요. 회식도 잘 안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잘 참석 안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자리라서 가능한데... (워킹맘 2)

정말 최소한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3년차 때는 job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 만 2월까지의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1년차가 3월에 오니깐...그리고 3월 이 되가지고 5월에 발표가 큰 게 있어요. 커리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표가 있어서 보통은 1월부터 준비를 해요. 5개월 동안 그 발표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까지는 못하고 2월까지의 바쁜 job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혼 안날 정도로만 그것만 하고 내 발표준비는 3월에 일이 줄어드니깐 그때부터 겨우 했어요. 그리고 논문은 필수가 아니어서 저는 정말 필수만 하고 나왔거든요. 나는 애기 때문에 논문 까지는 못하겠다. 교수님이 뭐라고 한들 저 사람이 나한테 윤리적인 규탄을 할 수 없게 최소한만 잘하자...그걸 잘 하면 되잖아요. 최소한 욕은 안 먹잖아요. 교수님 마음에 쏙 들 수는 없어도... (워킹맘 5)

저희가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 보니깐 연수원도 거기 있어요. 뭐 교육 받으려면 거기 가야되고, 원래는 합숙 교육인데 저 혼자 출퇴근하고 “애들 때문에 가야합니다.” 하고. 그래도 길어야 1주일 정도고 출퇴근할 만한 거리니깐 그렇게 했죠. (워킹맘 6)

이와 같이 워킹맘들이 ‘욕심 내지 않고’ 보류하는 일들에 해당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일에 관한 학습활동이었다. 워킹맘들은 일의 전문성을 위해 공부할 것도 많고 경력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여지가 많지만 그러한 새로운 활동들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교육 훈련의 경우에도, 승진 시험을 위한 선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연수를 떠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지점에서 한 번에 한 명씩만 갈 수 있는 연수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히 여겨졌다. 승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왔던 동료와 아이를 대신 돌봐주시는 친정엄마, 그리고 아이, 누가 봐도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았다.

필수로 하는 것 말고 더 하면 좋는데 그걸 못해서... 하면 좋는데 시간이 없고, 지금 하는 일이 수출입인데 공부해야 할 양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야근 못하고 뭔가 일을 더 추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냥 딱 돌아가는 정도로만 해 놓는 거죠...(중략)... 잘 하고 싶죠. 마음은 맨날 그런데 현실이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깐... 제가 지금 대리인데 과장을 달려면 은행원 연수라고 해서 한 1~2주를 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붙으면 과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자격증이라 액셀 워드 이렇게 몇 가지를 따라 되는데 얼마 전에 액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나 말고 옆에 남자 대리는 당연히 과장을 준비하니깐... 그런데 한 지점에서 연수를 두 명이 같이 못가는 거죠. 둘 다 가면 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럴 때는 내가 밀리는 거지. (워킹맘 7)

연구참여자들의 개인플레이 때문에 동료, 선후배들 간의 관계에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일 공동체의 다른 주체들과 다른 이질적인 태도로 인해 동료, 선후배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모르는 척’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다.

내가 대출을 빠지니깐 남자 직원 한명이 씹씩대면서 제 자리로 왔죠. 이미 그때부터 엄청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금융 업무도 해주고, 대출 외의 다른 업무는 내가 다 가져오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 직원이었으면 나눠서 1/n하면 될 것을 하는 거니깐... 그런 미안한 걸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웃음) 진짜... 나는 모르쇠 이렇게요. 말을 못하겠어요. (워킹맘 7)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대응 방식은 직업활동에 비해 육아활동을 주변적이고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일 중심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양성평등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자녀의 축구 경기를 위해 직장에서 회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휴가를 쓰는데에 당당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자녀의 육아는 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로 여겨질 뿐이다. 이는 일 활동체계의 동료나 선배 등 다른 주체들과의 갈등으로 초래하거나 연구참여자들의 육아 활동과 일 활동 간의 충돌을 가져온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두 활동체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모순을 회피하거나 일 활동체계에서의 주체성을 타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2) 삶의 방식의 학습 : 일과 육아의 경계 짓기와 허물기

Wattis, Standing, & Yerkes(2013)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일정한 상태가 아닌 불안정하고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워킹맘의 일과 가정의 균형잡기에서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에서 일과 육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경계 지어졌지만, 일과 육아의 변화무쌍한 성격 때문에 그 경계를 침범하게 될 때 연구참여자들은 갈등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과 육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들을 통해 최대한 일과 육아 활동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침범'이 발생할 때는 그 경계를 계획적으로 허물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특히 이러한 일과 육아의 방식은 워킹맘 1, 워킹맘 2, 워킹맘 5와 같이 일에 대한 주도권(initiative)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실은 나도 개를 재워놓고 내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업이다 보니깐 집에서도 연장선이야 집에 가서도 블로그 관리를 한다거나 생각을 하거나 기획, 본사와의 왔다 갔다 하는 문서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엄청나게.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리기도 하고 포스터가 하나 완성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의 하나의 chunk를 할 수 있긴 해. (워킹맘 1)

지난주에 그런 [병원에서 기획하는 새로운] 일들 준비하느라고,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일찍 나오는데 집에 와서 근무량이 늘어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획서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워킹맘 2)

정말 딱 칼퇴근, 딱 그 시간에만 하는데 그 이외의 진단업무는 이제 집에 와서 애들 재우고 이메일로 진단 작성해서 보내고 출력하고 이런 거요. 저한테 엑스레이나 사진 찍은 거나 그런 진단자료를 보내줘요. 저한테 그럼 제가 애들 재우고

그거를 진단을 이제 한 사람당 10분에서 20분 살펴봐야 되거든요. 엑스레이 찍은 거 보고 어떻게 치료할지 계획을 짚 세우는 거예요. (워킹맘 5)

이와 같이 일과 육아 활동이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에서는 일의 내용이 구분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일과 육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일과 육아 사이에 쌓아 놓은 벽돌을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무너트리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일과 육아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과 일의 내용을 위한 비상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워킹맘 1은 특정한 일들을 집에서 하는 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워킹맘 2는 좀 더 개인적인 일을 집에서 처리했다.

그냥 센터에서 못 다한 일들을 집에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래요. 일은 집에서 해도 되는 일, 이런 게 있어. (워킹맘 1)

회사일 중에서 동적인 일이 있고 개인적인 연구 일이 혼합된 건데... 동적인 일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죠. Nine to six는 제 일을 하는 시간이고 시간이 나면 제 개인 일을 하는 거고 집에 가져오는 거는 제 개인일이예요. (워킹맘 2)

연구참여자들이 이상의 전략들로 대응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활동체계의 구조적 모순은 확장학습의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체들이 각자의 의견과 가치, 관점 등을 공유하고 그 차이를 해결함으로써 확장학습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고, 워킹맘 개인이 표면적인 행위 수준에서 처리되는 학습의 형태를 띠었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서 활동 주체의 목소리는 개인의 위치와 동기의 표현이다. 하나의 활동을 공유하는 주체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의 차이를 드러내고 해결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으로 확장학습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힘을 잃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결국, 워킹맘이 되어가는 과정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을 내던 모습에서 힘을 빼고 불안정함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학습하는 과정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두 활동체계를 분명한 경계 속에 구분하고자 했지만 점차 시간과 공간적으로 두 활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현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자리매김을 해나갔다.

Mainiero & Sullivan(2005)이 만화경 경력 모형(kaleidoscope career model)을 통해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력은 비선형적이며 역동적이다.

여성은 경력의 과정에서 진정성, 균형, 도전의 가치 사이에서 초점을 옮긴다. 연구참여자들은 일과 가정 간의 경계를 유연하게 재설정하고 끊임없이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개인이 '균형'에 자신의 행위의 동기를 두고 있는 것이 영구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며, 육아기가 지나면 언젠가는 일에서의 성장과 도전에 초점을 둘 시기가 올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하였다.

## V. 논의

이 연구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프레임으로 고학력 워킹맘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워킹맘으로서 일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일'이라는 활동과 '육아'라는 활동을 병행하는 주체로서 워킹맘이 그 병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여기서 사회구조적 모순이란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모형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간의 불일치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에 대한 대응으로써 나타나는 학습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워킹맘의 일과 육아 병행과정에는 심리적 분열과 소진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이나 가족 간의 관계적 갈등, 그리고 활동체계 요소들 간의 불일치와 일과 육아 활동체계 간의 충돌이 존재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일과 육아의 경계 만들기', '변신하는 힘겨움',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일과 육아의 경계'로 명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산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일과 육아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두 세계를 넘나들며 일에서는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엄마로 두 영역에서 서로 다른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분명한 경계 속에서 두 활동체계를 안정화시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다 보니 워킹맘의 삶은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일과 육아로 꽉 차있는 포화상태의 삶에서 워킹맘으로서라기 보다는 일하는 여성과 엄마를 오가며 힘겹게 변신하는 삶을 살았다. 일과 육아 공동체 내에서 워킹맘으로서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러한 내적, 관계적 갈등은 일과 육아 활동이 본질적으로 매우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했다. 일의 세계는 고객, 혹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인다. 즉, 일터의 외부 환경과 요구에 따라 일하는 주체의 주체성이 변경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일과 육아의 주체로서 두 활동체계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에서 조직과 고객의 요구에, 육아에서는 아이의 요구에 맞추어 움직여야 했으며 그 때마다 활동체계의 주체와 객체, 도구와 규칙 등 요소들 간의 불일치, 즉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워킹맘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김혜영(2007), 노성숙·한영주·유성경(2012), 박기남(2009), 안민영(2014), 천혜정·이지선(2010)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다루어져왔다.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여성 개인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과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차원의 갈등을 넘어서 워킹맘이 두 발을 딛고 참여하고 있는 일과 육아 활동체계에서의 구조적 모순들이 발견되었다. 즉, 워킹맘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 소진 등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배태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그 한계를 통제하려던 것에서, 두 활동의 경계를 유연하게 구성하고 재구성해나가는 삶의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 이 내용을 ‘일하는 방식의 학습’과 ‘삶의 방식의 학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 간에 발생하는 모순에 대응하는 방식은 소극적이었으며 때로는 타협과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제안한 Engstrom(2001)에 따르면, 활동체계를 이루는 요소들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과정이 곧 확장적 전환,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확장학습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과 육아의 순조로운 병행을 방해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면서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서 구조적 모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주어진 활동의 상황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오히려 일과 육아의 두 활동은 분명하게 경계를 짓고 구분하는 방식보다는 유연하게 경계를 조절해가는 방식을 통해 양립한다는 것을 학습해나갔다. 정적이지 않은 두 활동의 객체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일과 육아 간의 힘 조절을 해야 했다. 직장에서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 중심적인 모드로 변환되기도 하고 육아를 위해 선택과 집중, 포기를 하기도 하는 등 일하는 방식으로써 유연하게 ‘뺏고 끊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의 방식은 일과 육아 활동 간의 경계를 지었다가 허물고, 다시 새롭게 짓기를 반복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졌다. 일과 가정의 두 세계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주체성과 엄마로서의 주체성을 넘나들며 변신하던 모습에서



'워킹맘'으로서 이제는 자신만의 독특한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문화역사적 맥락에서 나타난 구조적 모순 속에서 워킹맘들은 두 활동체계를 구축해가는 한편, 각 활동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주체성을 확립해갔다. 즉, 일 활동체계의 객체에 맞추어 정렬되어 있던 워킹맘의 주체성이 육아 활동체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상충하는 주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워킹맘 고유의 새로운 주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주체인 개인과 활동체계인 맥락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워킹맘이라는 주체성을 확립하기까지의 과정은 일과 육아 활동의 주체인 워킹맘 개인이 활동체계의 구조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한 구조적 모순들을 통해 매개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워킹맘이 경험하는 모순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맥락 속에 존재하는 공동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개인의 차원에서의 대응만이 이루어질 뿐이었다.

이상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활동체계 모형이 유용한 틀로 활용되었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모형을 통해, 워킹맘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과 분열이 사회구조적 제약에서 기인함을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워킹맘의 심리적 상태를 넘어서서 평생학습 관점에서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일과 육아 활동의 주체인 워킹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은 순조롭게 양립되지 못했다. 일과 육아 활동은 근본적으로 변화무쌍하고 통제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일과 육아 활동의 조화로운 양립을 통제하고자 했던 워킹맘들의 의도와 충돌했다. 또한 일과 육아의 객체(object)인 고객, 조직 또는 아이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활동체계의 요소들은 서로 불일치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일으켰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활동의 주체인 워킹맘과 공동양육자들 간의 갈등, 일 활동체계의 규칙과 육아 활동체계의 규칙 간의 불일치, 일 활동체계의 객체와 육아 활동체계의 규칙 간의 불일치 등의 구조적 모순들이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활동체계의 모형으로 워킹맘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활동의 주체인 워킹맘 개인의 내면세계에서 겪는 심리적인 갈등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밝혔다.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례는 경력 단절의 기로에서 경력 유지를 선택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해 온 고학력 워킹맘들이었다. 이들은 삶에서 공식적으로 제도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암묵적이고 문화적인, 비공식적인 억압의 기제들이 존재했다.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전통 속에서 직업 활동에 비해 가정에서의 돌봄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있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일과 육아 활동 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육아를 우선시 여기며,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육아 활동을 유급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치있는 일로 여기는 인식이 워킹맘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을 체계적인 틀 속에서 명백히 보여준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서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은 확장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구조적 모순을 그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즉 그들만의 '워킹맘'으로써의 주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학습의 발단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의 경력유지 방안으로써 공식적인 제도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맥락의 개선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맥락의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이 어떠한지 보다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 있는 워킹맘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는 경력의 경로와 단계, 직종에 따라 그리고 생애단계에 따라 다양한 워킹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 워킹맘들만 포함되었다. 특히 취학 전의 자녀를 둔 육아기의 워킹맘들로 한정하고 그들이 출산 후에 일을 시작한 시점에서의 상황과 일과 육아의 병행과정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 있는 워킹맘들의 삶의 양상은 어떠한지 보다 포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워킹맘들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워킹맘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워킹맘이 존재하는 활동체계를 분석의 단위로 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 속에서 워킹맘의 주체성과 목소리가 갖는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을 동행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삶의 장면들을 직접 포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 연구참여자와의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전사록을 생성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택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인 해석과 인식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방법이었지만 일과 육아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을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워킹맘 개인이 아닌 일과 육아 활동체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이 연구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규희(2016). 자녀양육 직장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속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이수·신경아, 박기남(2015). 여성과 일 :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서울 : 학지사.
- 공병혜·박순애(2009). 질적 연구 인터뷰에 대한 철학적 배경. 질적연구, 10(2), 77-85.
- 곽현주·최은영(2001). 일-가정 전이, 직장 내 공정성 및 시간당 임금이 여성관리자의 경력전망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86(1), 175-210.
- 김보령(2016). 워킹맘의 스트레스와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안희란(2016).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 김영미(2013). 한국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대안. 월간 복지동향, 175, 13-18.
- 김은정(2013).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5(2), 168-198.
- 김현동(2015). 멘토링 기능이 여성관리자의 직장-가정생활 부정적 상호전이과정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88(1), 403-427.
- 김혜영(2007).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은 가능해지는가. 젠더리뷰, 4, 32-42.
- 노성숙·한영주·유성경(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문은미(2014). 여성노동자 50년, 여공에서 워킹맘까지 :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 버전 업. 여/성이론, (31), 188-205.
-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한국여성학, 25(2), 37-71.
- 박순용(2010). 교육현장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 특별기고 : 방법론 특강 I, 국제이해교육연구, 5(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 세이드만·어빙(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 박혜준 외 (역). 서울 : 학지사. (Seidman, I.,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Teachers College Press, 1997)
- 스타인백·수전 & 스타인백·윌리엄.(2002).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천. 김병하 (역). 한국학술정보 (Stainback, S. & Stainback, W., *Understanding and*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1998).
- 신윤정(2015).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가정 양립. 보건복지포럼, 116-127.
- 안민영(2014). 일·가정양립 어려움의 계층별 차이와 사회권 인식차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1-53.
- 앵게스트렘·위리웨(2014). 팀의 해체와 낚임: 활동이론으로 보는 일터의 협력과 학습. 장원섭, 구유정 (역). 서울: 학이시습 (Engeström, Y., *From teams to kno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이내영·김영혜, 구미지, 김소희, 김영미, 장경오(2007). 직장여성의 육아경험.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3(3), 329-337.
- 이동성·김영천(2014).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 탐구: 실용적 절충주의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1), 159-184.
- 이수혜(2006). 여성 리더의 가족 경험: 가족 내 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0). 일·가족 갈등의 통합모형. 한국심리학회지, 19(2), 1-42.
- 이자명(2013).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대안적 사고 차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유(2011).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통일인문학, 55, 289-316.
- 이정희(2014). 일·가족 양립 문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 86(1), 281-324.
- 이화용·황아정(2012). 기혼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상사의 지원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갈등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1(2), 45-66.
- 정진철·김성만(2008). 가정친화 분위기가 일·가정 갈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1(6), 2931-2950.
- 조혜영(2012). 워킹맘 고통지수와 일·가정양립정책. 젠더리뷰, 27(4), 27-36.
- 천혜정·이지선(2010). 취업여성의 일과 삶의 조화에 관한 연구: 경험과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25-41.
- 최효미(2013).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크레스웰·존(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외 (역). 서울: 학지사 (Creswell, J.,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2007)

-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에서 2016. 11. 12. 인출.
- Engeström, Y.(1987). *Learning by expanding: an activity-theoretical approach to developmental research*. Helsinki : Orienta-Konsultit.
- Engeström, Y.(2006). From well-bounded ethnographies to intervening in mycorrhizae activities. *Organization Studies*, 27(12), 1783-1793.
- Engeström, Y.(2015). *Learning by expanding: an activity-theoretical approach to developmental research*(2nd e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geström, Y., & Sannino, A.(2010). Studies of expansive learning : foundations, findings and future challenges. *Educational Research Review*, 5, 1-24.
- Grant-Vallone, E., & Ensher, E.(2010). Opting in between : strategies used by professional women with children to balance work and family. *Journal of Smith, C., Santucci, D., Xu, S., Cox, A., & Henderson, K.*(2012). “I love my job, but...” : narrative analysis of women’s perceptions of their careers in parks and recre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4(1), 52-69.
- career development, 1-18.
- Mainiero, L. A., & Sullivan, S. E.(2005). Kaleidoscope careers :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 opt-out revolution.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 106-123.
- Smith, C., Santucci, D., Xu, S., Cox, A., & Henderson, K.(2012). “I love my job, but...” : narrative analysis of women’s perceptions of their careers in parks and recre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4(1), 52-69.
- Stake, R. E.(2005). Qualitative case studies. In Norman K. Denzin & Yvonna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3rdEd.) (pp443-466).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
- Wattis, L., Standing, K., & Yerkes, M.(2013). Mothers and work-life balance : exploring the contradictions and complexities involved in work-family negotiation. *Community, Work & Family*, 16(1), 1-19.

Abstract

## A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etical Approach on Highly Educated Women 'Becoming Working Mothers'

Yoo-jeong Koo\*·Wonsup Ch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highly educated working mothers from a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etical (CHAT) perspective.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such : First, what personal challenges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do they experience? Second, how do they manage and deal with such problems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

Qualitative in-depth interviews were undertaken with 7 highly educated working mothers with the youngest child under 7-years old. Each participants were met at least 3 times during the period of 8 months and each interview took around 1 or 2 hours. The expanded model of activity systems was adopted as the framework for content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scordance at the personal psychological level, the social relational level, and the societal activity system level. While working mothers tried to juggle work and child rearing activity by strictly separating them and fixing boundaries, working the two activities needed fluid and flexible adjustment and revisioning. Second, the interviewees gradually learned to handle the contradictions by flexibly setting and resetting the boundary's of their work and childrearing activity.

In conclusion, it was revealed that the struggles of Korean working mothers were not their personal matters but something caused by contradiction in the societal level. The course of their experience dealing with different kinds of discordance could be regarded as a process of learning and constructing new subjectivity. According to such findings and conclusions,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was discussed.

**Keywords :** working mother, work-family balance,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expansive learning

---

\*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